

천주교 사제
정은규 몬시뇰

정은규 몬시뇰

출생 : 1932. 10. 31(鄭銀圭, 본관 경주, 鄭行敦과 崔在慶의 장남, 세례명 시몬)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1951), 로마 우르바노대 철학석사(1957),
로마 우르바노대 신학석사(1961), 로마 라테란대 법학석사(1965)

경력 : 로마 우르바노신학원 성당에서 사제 서품(1960. 12. 21)
독일, 영국, 미국에서 사목 연수(1965-1966)
한국주교회의 사무차장, 신학잡지 '사목' 창간(1967)
광주가톨릭대 교수 겸 교학처장, 신학잡지 '신학전망' 창간(1968)
한국주교회의 출판국장, '경향잡지' 편집인(1973)
한국주교회의 사무총장, 'CBCK회보' 창간(1981-1990)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 겸임(1981-1991)
교황청 세계성체대회 위원 겸임(1981-1991)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주교위원회 사무총장 겸임(1981)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위원 겸임(1986-1991)
로마 한인신학원 재단 대표(1990), 로마 한인신학원 원장(199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몬시뇰'로 서임(1995. 6. 9)
교황청 베드로사도좌 순례사목 자문위원 겸임(1996-2000)
한인신학원 '교황청립' 승격(2000), 한국순교성인성당 봉헌(2000)
은퇴 후, '시몬장학회' 설립(2004)
'정행돈교육상' 및 '정재문사회복지상' 제정(2011)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2013)
모잠비크 '정행돈교육관' 건립(2015)
칠곡군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센터' 및 '정행돈기념관' 개관(2017)
칠곡군 '정행돈장학회' 설립(2017)
대구가톨릭대 '애국지사 정행돈장학기금' 조성(2019)
대구가톨릭대 '시몬장학기금' 조성(2023)



몬시놀님의 숭고한 뜻, 참 인재 양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의 큰 어른이신 정은규 몬시놀님께서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몸돌바 모를 만큼의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애국지사사이시자, 우리 지역 교육의 선구자셨던 부친 정행돈 선생님의 뜻을 이어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해 거액의 장학기금을 여러 차례 쾌척하셨습니다.

조부 정재문 선생님, 부친 정행돈 선생님, 백부 정행본 선생님, 그리고 정은규 몬시놀님까지. 척박한 이땅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심어주시고자 대를 이어 쏟아오신 사랑과 봉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 이어오신 그 사랑이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은규 몬시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뜻이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교육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은규 몬시뇰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영육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서한기

정은규 몬시뇰, 대구가톨릭대에 장학기금 20억 원 기탁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은규 몬시뇰(가톨릭교회에서 고위성직자를 이르는 말)이 대구가톨릭대에 장학기금 20억 원을 기탁했다. 정은규 몬시뇰과 대구가톨릭대는 4월 14일 교내 본관에서 '시몬장학기금'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최소 5천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정은규 몬시뇰은 독립유공자(건국훈장 애족장 수훈)이며 교육자인 부친 故 정행돈 선생의 유지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모범 대학생과 고교생,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다시 대구가톨릭대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 이번에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 것이다.

대구가톨릭대는 정은규 몬시뇰이 기탁한 기금에 10%를 더해 매년 최소 55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분위,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계곤란 속에서도 면학에 힘쓰는 학생을 엄선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은규 몬시뇰은 2019년 부친 故 정행돈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생 정신규, 정오규, 정완규 선생과 함께 '애국지사 정행돈 장학기금' 20억 원을 조성해 대구가톨릭대에 기탁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매년 최소 50명을 선발해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은규 몬시뇰은 장학사업 외에도 2010년 대구가톨릭대에 안중근 의사 추모비를 건립해 기증했고, 안중근연구소 운영과 동상 제막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해외봉사사업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 최빈곤 국가에 학교 설립 활동도 펼쳤다. 또 2011년 '정행돈 교육상'과 '정재문 사회복지상'을 각각 제정해 모범교사와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등 국민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3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도자료(2023. 4. 14)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2011학년도 2학기 시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2011. 9. 28)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
실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 2011학년도 2학기 시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정은규 몬시뇰 격려사



정은규 몬시뇰의 기증으로 대구가톨릭대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순국 동상과 추모비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학생들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본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추모비 제막식
정은규 몬시뇰 기념사 (2010. 3. 26)



애국지사 정행돈 장학기금 조성 협약식 (2019. 2. 27)

선친께서 평소
청소년에게 큰 애정을 갖고 계셨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많이 도와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이런 유지를 받들어
선친의 뜻을 기리는 장학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기쁩니다.

- 애국지사 정행돈 장학기금 조성 협약식
정은규 몬시뇰 인사말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걸어온
정은규 몬시뇰의 여정



사제서품 _ 로마 우르바노신학원 성당(1960. 12. 21)



첫 미사 _ 로마 성베드로 대성전 경당(1960. 12. 22)



미사 후 성베드로 광장에서(1960. 12. 22)

한국주교회의의 사무총장 취임미사
_ 서울 충무로(1981. 5. 29)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획위원장 취임
_ 서울(1981. 7. 31)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정신운동분과위원회 회합
(1984. 1. 31)



김수환 추기경, 젊은이들과 함께
(1983. 4. 2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영접
_ 대구 공항(1984.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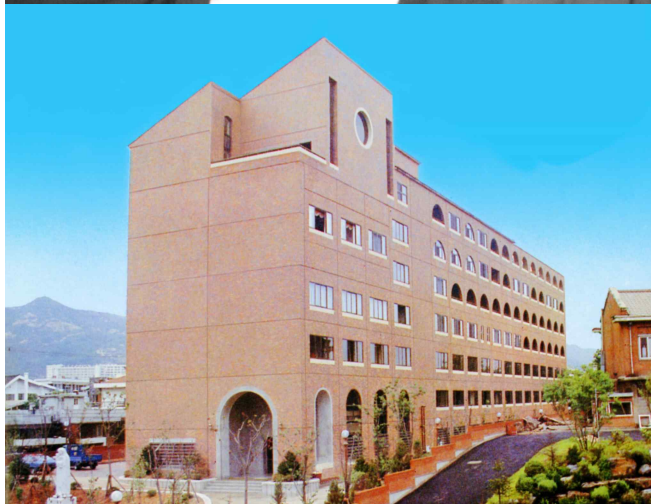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알현
_ 주한교황대사관 (1984. 5. 6)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정신운동분과위원회 회합
_ 서울(1984. 11. 25)



김대건 성인 동상 건립
_ 필리핀 볼롬보이(1986. 5. 22)



한국 주교회의의 사무처 신축 건물 완공
_ 서울(1986. 7. 16)



한국 주교회의의 사무처 준공식
_ 서울(1986. 7. 16)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위원 임명
_ 로마(1986. 9. 18)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총회
_ 로마(1986. 9. 18)

교황 하사품 성작과 성반
(1988. 10. 13)



교황청 전교기구 아시아 회의
_ 스리랑카(1989. 4. 9)



교황 한국주교단 합동 미사
_ 교황 경당(1990. 10. 15)



몬시놀 서임
_ 교황청(1995. 6. 9)

교황 한인신학원 초석 축복
_ 로마(1998. 12. 2)



한인신학원 신축 공사장
_ 로마(1999. 10. 14)



한인신학원 완공
_ 로마(2001. 1. 12)



교황 한인신학원 방문
_ 로마(2001. 3. 23)

사진작가 외삼촌 최계복 탄생 100주년 사진전 개최
_ 대구(2009. 10. 28)



애국지사 정행국, 정행돈 추모비 건립
_ 칠곡군 애국동산(2009. 12. 24)



안중근 연구소 설립
_ 대구가톨릭대학교(2010. 3. 26)



애국지사 정행국, 정행돈 추모공원 조성
_ 왜관(2010. 8. 15)

사제 서품 금경축
_ 대구 계산성당(2011. 4. 21)



제1회 정행돈 교육상 시상식
_ 매일신문사(2011. 5. 16)



제1회 정재문 사회복지상 시상식
_ 매일신문사(2011. 9. 20)



시문장학회관 건립
_ 왜관(2011. 9. 24)

모잠비크 시몬장학생들
(2012. 10. 31)



모잠비크 정행돈교육관 건립
(2015. 7. 25)



모잠비크 정행돈교육관 공사장
(2015.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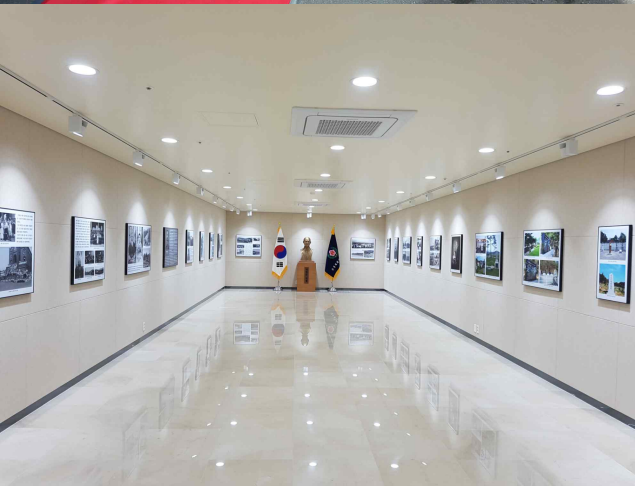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_서울(2013. 2. 21)

칠곡군립 정행돈기념관 및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개관
_ 왜관(2017. 3. 9)



백선기 칠곡군수와 정행돈 애국지사 후손들
_ 왜관(2017.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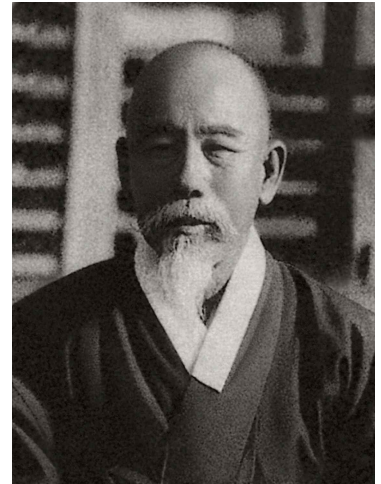
칠곡군립 정행돈기념관 내부 전경
_ 왜관(2017. 3. 9)



칠곡군 정행돈장학회 설립
_ 왜관(2017. 12. 27)

집안 대대로 이어온 사랑과 봉사의 삶

정은규 몬시뇰의 조부 정재문(鄭在文) 선생은 1876년 10월 2일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자(字)는 순경(舜卿)이고 16세 때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1920년 왜관에 남일정미소(南一精米所)를 차렸으며 낙동강과 경부선 철도가 만나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업 수완과 성실성으로 왜관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선교 사업과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과 불우 이웃 돕기에도 힘썼다.



정재문 선생

1922년 자기 집에 천주교 공소(公所)를 열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신자가 많아지자 1928년 토지 1,895평을 마련하고 공사비 4분의 3을 부담, 큰 고딕 성당을 세웠다. 1921년 왜관곡물상조합을 결성하여 일본인들의 횡포에 맞섰으며 두 아들의 독립운동은 물론, 중국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1925년 대홍수로 기근이 발생하자 칠곡기근구제회를 조직하여 이재민 구제에 힘썼으며, 1929년 큰 가뭄으로 많은 빈민이 발생하자 대대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준공된 가실(佳室) 성당은 영남에서 대구 계산 주교좌성당 다음으로 오래된 성당이다. 그 당시 왜관에는 정 선생이 설립한 천주교 공소는 있었지만 성당이 없었기 때문에 큰 축일에는 왜관 신자들은 가실 성당에 가야 했다. 그는 가실 성당 건립에도 기여했다. 그 공로로 그의 세례명이 성당 종에 새겨져 있다. 대구 교구 설정 100주년(2011)에는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성당 경내에 ‘스승예수공원’이 조성되고 큰 예수상이 세워졌다. 그가 왜관에 세운 고딕 성당은 영남에서 대구 계산 주교좌성당 다음으로 큰 성당이다.



가실성당

비록 공소에 건립하는 성당이지만 장래 큰 신앙공동체가 될 것을 예견하여 가실 성당보다 크게 지었으며, 그는 총회장이 되어 전국에서 이름난 모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당시 왜관 신자들은 그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신심단체 활동은 물론 여러 교회 사업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왜관 성당은 이 지역 최초의 붉은 벽돌 건물이라 모든 사람에게 경이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초대 주임 프랑스인 선교사 여동선(呂東宣) 신부(1879-1949)는 정 선생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제단 위 오른쪽 벽에 정 선생의 수호자 성 안드레아상을 세우고 성당 종에는 정 선생의 부인 최 오티리아(崔秩羅 1872-1959)가 ‘종의 대모’라고 새겼다.

정 선생은 왜관 성당 3대 주임 프랑스인 선교사 이동헌(李東憲) 신부(1900-1950)가 1936년 5월 15일 개원한 소화여자학원(小花女子學院, 현 純心中學校)의 3대 원장이 되어 여성 교육에도 힘썼다. 소화여자학원은 이 지역 최초의 근대식 여성 교육기관이었다. 1945년 왜관 신자들이 순심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정 선생은 문중 토지 64,814평을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 전부를 불우 이웃 돕기에 희사한 뒤 1954년 7월 9일 서거하였다. 당시 왜관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는 평소 자기 밥상에 두 가지 이상 반찬을 놓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였지만 불우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희사하였기 때문이다.

정재문 선생의 장남 정행국(鄭行國 字 榮秀) 선생은 1896년 12월 24일생이며 천주교 세례명은 원선시오이다.

서울에서 숭실전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자, 1914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쩌다오 지역과 지린성 창춘에서 활동하였다.

1919년 3.1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5월 귀국, 왜관청년회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고 동창학원(同昌學院)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1921년 10월 왜관청년회가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 “나의 조국은 죽지 않는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다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같은 달 12일 순국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고 위패가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에 안치되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사진은 없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 사진이 무슨 소용 있으며 사진은 독립운동 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행국 선생 위패



정행본 선생

차남 정행본(鄭行本) 선생은 1899년 1월 9일 태어났으며 천주교 세례명은 요안이다. 1928년 남일정미소 전무가 되어 부친의 사업을 도우면서 왜관 성당 신축 공사를 감독하였고 성당에서 교리를 가르쳤으며 훗날 왜관 성당 총회장이 되어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왜관 성당의 초대부터 5대까지의 주임 신부는 프랑스인 선교사였다. 그들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한국 실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신자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때가 있었는데 정 선생이 지혜롭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관청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교량 역할을 잘 해내었다.

1945년 정재문 선생을 위시한 왜관 성당 신자들이 순심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왜관 성당 주임 이명우(李明雨) 신부가 준비위원장이 되고 정행본 선생이 부위원장이 되어 수고하였다. 그 공로로 1955년 8월 24일 순심교육재단 4대 이사장이 되고 1962년 교육공로자로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968년 칠곡문화원을 설립하여 초대 원장을 지냈으며 다년간 칠곡군 여러 기관의 자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1981년 5월 22일 별세하였다.

4남 정행돈(鄭行敦) 선생은 1912년 8월 22일 태어났으며 천주교 세례명은 미카엘이다. 1931년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 재학 중 독립운동가인 만형정행국(鄭行國)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독립운동에 투신, 항일 동맹 휴학을 주동하다가 퇴학당하였다.

1931년 5월 17일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북여자고등학교) 출신 최재경(崔在慶 발바라 1912-1999)과 결혼한 후, 고향에서 만형이 설립한 동창학원(同昌學院)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이창기(李暢基), 이두석(李斗錫), 박몽득(朴夢得) 등과 함께 왜관청년동지회를 조직, 독서회 명목의 비밀결사 성진회(惺進會)를 통하여 농촌 계몽과 한글 강습을 하다가 193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년 1개월 동안 혹독한 옥고를 치렀다.

1941년 석방되어 소화여자학원 3대 원장인 부친의 교육 사업을 도왔으며 조국 광복 때까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1945년 조국 광복 후, 왜관 신자들이 순심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상임 이사로서 토지 4,833평을 기부하고 1947년 문교부 교육공로상을 받았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1주일 만인 7월 1일 순심중학교 5대 교장이 된 그는 1961년 7월 31일까지 만 11년 1개월 동안 학교 운영에 온 정성을 기울였으며 1952년 순심고등학교를 설립, 초대 교장을 겸하였다.



정행돈 선생

1950년 12월 토지 7,140평을 자비로 매입, 불우 이웃을 위하여 창마묘지를 조성, 왜관 성당에 기증하였고 1956년 왜관 삼청동 한센인 복지 시설 건립에 기여하였다. 1961년 8월 23일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 순심교육재단 운영권을 이양하고 1961년 재건국민운동 칠곡군 회장에 추대되어 6년 동안 봉사하였다.

1964년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중등 교육기관인 명성고등공민학교(明星高等公民學校)를 설립, 3년 동안 교장을 지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2003년 8월 19일 서거,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부인과 합장되었다.

왜관성당 계단의 정행돈 선생과 그의 친필
(1945. 5. 15)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사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본받겠습니다

애국지사이시며 교육자이신 정행돈 선생의 후손들께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거액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시고 쾌척하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전 구성원을 대표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학기금 조성은 정행돈 선생 집안과 대구가톨릭대학교와의 오랜 인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행돈 선생의 막내 동생이신 정행만 신부와 우리 대학의 전신인 효성여자대학 설립자이신 전석재 몬시뇰과는 사제 서품동기이시며 깊은 친분이 있었기에, 효성여자대학 설립에서부터 정행돈 선생께서는 전석재 몬시뇰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특히 정행돈 선생 장남이신 정은규 몬시뇰께로 이어져, 정은규 몬시뇰께서는 2004년 시몬장학회를 설립하셔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본교 학생 44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과 추모비를 기증하셨고, 본교 안중근 연구소 설립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애국지사이시며 교육자이신 정행돈 선생과 그분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대를 이은 대구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사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며 정행돈 선생과 후손들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랑과 진심이 담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정우 신부(前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_ 정행돈 장학기금 조성 협약식 인사말(2019. 3. 15)



칠곡군립 정행돈기념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관람시간 : 9시 ~ 18시(주말, 공휴일 휴관)

전화 : 054)971-0950 팩스 : 054)971-0952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